

## 부고

마리아 이그네스 MARIA IGNES 수녀

ND 5362

(이전 마리아 콘수엘리스 Maria Consuelis 수녀)

이그네스 윈터 Ighes WINTER



브라질, 과달루페 성모 관구

출생:	1938년 9월 25일	RS, 상루이스 곤자가
서원:	1960년 2월 10일	RS, 파소 폰도
사망:	2026년 4월 26일	RS, 나오 메 토케
장례:	2026년 4월 27일	파소 폰도, 산타 크루즈 묘지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요한복음 10,14. 27)

이그네스는 조르세 조세 윈터와 아나 윈터의 막내딸이었다. 아그네스에게는 형제 세 명과 자매 다섯 명이 있었다. 형제 중 한 명인 주앙 파울루 윈터는 성가정 선교회 신부였으나 이미 세상을 떠났다. 자매 중 두 명인 마리아 이레네 수녀와 마리아 안젤리나 수녀는 모두 노틀담 수녀회 소속이었으나 역시 세상을 떠났다.

깊은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자란 이그네스는 두 수녀 자매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느꼈다. 1958년 2월 11일, 수련소에 입회하여 마리아 콘수엘리스 수녀라는 수도명을 받았다. 이후 세례명으로 돌아갔다.

수도 생활 초기부터 이그네스 수녀는 교육에 헌신하며, 주로 노틀담 학교에서 과학 및 수학 교사로 봉사했다. 또한 교구 학교와 공립 학교에서 교장으로서 사도직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진지하고 때로는 내성적인 성품이었지만, 친절함과 단호함으로 유명했으며, 특히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언제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맞아주었다.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지닌 수녀는 그림, 자수, 코바늘 뜨개질, 뜨개질 등 다양한 수공예에 탁월했다. 이러한 활동은 수녀에게 기쁨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처지의 학교들에 필요한 교육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기금 마련에도 도움이 되었다.

이그네스 수녀는 평생 공동체 생활과 기도, 사도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교육 사도직에서 은퇴한 후에도 본당 전례팀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병자들을 방문하며 아낌없이 봉사했다. 예수 성심에 대한 깊은 신심을 지닌 수녀는 ‘기도 사도직’ 모임의 모임을 열성적으로 준비했다.

2025년, 마리아 이그네스 수녀는 수도 생활 65주년을 기념하는 철경축을 맞이했다. 5월 18일, 가족들과 수녀들과 함께 기쁨으로 모여, 자신의 삶과 하느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수도 생활이라는 은사를 주신 좋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렸다.

2026년에는 나오 메 토케의 노인 수녀 공동체에 합류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건강이 점차 악화되었다. 병원에서 며칠을 보내며 병자 성사를 받은 후, 수녀는 4월 26일, ‘성소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에 평화롭게 주님 품으로 떠나갔다.

우리는 착한 목자께서 사랑하는 이그네스 수녀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시고, 수녀가 훌륭하고 거룩한 성소자들을 많이 맞이할 수 있도록 전구해 주기를 기도한다.